

# 친환경 석회유황·보르도액 만들어 병해충 관리



### 안전먹거리 지킴이...유기농 명인을 만나다

(6)보성 녹차골 대표 '조효익 명인'

#### 자연 그대로 농법으로 배 재배...한해 농약 검사만 5차례 수확량 90% 전남 학교 급식에...“유기농은 모여야 시너지”

“유기농업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제 힘으로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할 수 있는 자연그대로 농법입니다.”

보성군 잣등길에서 농업회사법인 녹차골(주)을 운영하고 있는 조효익(48)명인.

조 명인은 이곳에서 2005년 친환경 농업을 시작,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했다.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배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뛰어들어 지킴이 지킴이 이르렀다. 현재는 1만6천528㎡(5천평) 정도의 배 밭에서 무농약과 유기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부 유기농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모든 밭에서 나오는 작물의

유기농 전환이 가능한 것은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친환경 퇴비와 낙엽, 전정가지 등을 함께 로터리 작업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고압추출 친환경 석회유황과 보르도액, 각종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해충약제를 직접 만들어 유기농업에 최적화된 병해충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명인의 녹차골에서 나오는 배는 일년에 인증업체 두 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 번, 도청 한 번, 순천대 친환경농업센터 한 번 등 총 5번의 인증검사를 진행한다.

철저한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유는 명인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신념 때문이다.

이 같은 친환경 농법을 지속 유지해



올해 전남도내 처음 시행하는 명인 개인 브랜드인 '명인드림' 포장지에 가공된 배즙(왼쪽)과 판매되는 배 상자를 들고 있는 조효익 명인. /안태호 기자

은 결과 지난 2017년 친환경 농업육성 발전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 2019년에는 배 재배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전남도 유기농 명인' 제23호로 지정됐다.

배는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해 특히 변비 예방에 좋으며 루테올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염이나 감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품질 좋게 생산되는 배의 90%는 학교 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작물은 가공을 통해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학교 급식을 통해 유통 판로를

확보한 상태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저농약, 유기농 제품이 같은 마크를 붙여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알지 못했고 배꽃이 보통 4월에 피는데 같은해에 다시 피는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배꽃이 일년에 두 번 피면 다음해에 수정이 되질 않고 유기농은 특히 예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약을 쓸 수 없어 제대로 된 수확을 하려면 3년을 다시 기워야 한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명인은 전남도 정책을

폈었다.

조 명인은 “전국 유기농을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기 위해 20여년간 많은 시도를 다녀봤지만 유독 전남은 친환경 정책이 잘 갖춰져 있어 농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도내 처음 시행하는 명인드림이라는 명인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어찌 소비자에게 유기농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개인 브랜드도 생긴 명인의 앞으로 계획은 가공 확대와 많은 친환경 농가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조효익 명인은 “처음 유기농을 전환

할 때 읽었던 거북선 농업(저자 정운천)이라는 책 속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며 “전국 배의 주산지인 나주배의 아성을 뛰어 넘기는 어렵겠지만 도내 유기농배의 본산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농은 생산량이 정확하지 않아 꼭 가공이 필요해 앞으로도 가공 판매를 확대하고 많은 유기농 농가와 함께 유기농이 안전하고 경쟁력도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태호 기자

## 전남산 계란 안전 강화한다

#### 도동물위생시험소, 유통업체 32개소 살모넬라균 등 집중 검사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4일 “폭염 장기화로 축산식품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데다, 초·중·고교의 개학과 추석 등으로 계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한 달 간 전남산 계란을 중점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용란을 선별·세척해 직접 유통하는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직접 방문·수거해 실시한다.

기존 계란 내용물 속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살모넬라균 검사 외에도 계란 껍데기에서 살모넬라균 검사를 추가해 전 국민 기초 영양식품인 계란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제조·

판매업체에 신속하게 통보해 해당 제품 유통을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한 달간 이어진 폭염에 이어 제9호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졌다”며 “학교 급식과 명절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계란을 철저히 검사해 안전한 전남산 계란이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17년부터 매해 6-8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잔류물질과 살모넬라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도 검사를 진행, 산란계농장 112개소 전체가 적합 판정을 받아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시원 기자



### NH농협손해보험, 천관농협에 위더스상 수여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4일 “전남 천관농협에서 ‘위더스(With-us)상’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장경민 NH농협손해보험 마케팅본부 부사장, 문익주 전남총국장, 전준순 농협장흥군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위더스(With-us)상은 보험사업추진을 통해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앞

장선 농축협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천관농협은 올해 손해보험 사업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외중 천관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험추진을 통해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비이자 수익 확대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달성해 안정적인 조합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 NH농협은행, 3행·3無 금융사고 근절 결의

농협광주본부는 4일 “NH농협은행이 전남 광주본부 회의실에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3행(行)·3무(無)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사고 근절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3행(정령·소통·배려)·3무(사고·갑질·성희

롱) 윤리경영 실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광주농협 구현을 위해 앞장 서기로 했다.

박내춘 농협은행광주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금융사고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부통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건강과 행복! 우리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모닝서울안과

GOOD MORNING SEOUL EYE CENTER

도안/백내장  
라식/라섹  
안검하수/쌍꺼풀  
눈물길수술

2층 수술센터 / 3층 외래진료센터  
- 안구건조증 클리닉 운영

광주 서구 무진대로 965  
태영내과21빌딩·메디컬센터 2, 3층

☎ 062.430.2020

에덴병원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진료내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전화 : 062-260-3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 (두암동)

www.ct119.co.kr

광주시티병원

www.ct119.co.kr

광주시티병원 062.460-7000  
응급실 062.460-7119

동이병원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전문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